

참 가르침 배워 발심 기회로

출가·열반절 맞아 전국서 '수행 열기' 조계사·흥법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3월 26일 부처님 출가절과 4월 2일 열반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이 이 기간을 '유명정진주간'으로 삼고 다양한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불교의 4대 명절에 속하는 부처님 출가(음력 2월 8일)·열반(음력 2월 15일)절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다양한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올해 출가절은 3월 26일, 열반절은 4월 2일이다. 불가에서는 출가·열반절 기간을 '유명정진주간'이라 부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기간으로 삼는다.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이사장 허경만)은 '출가·열반·봉축맞이 대중강좌'를 마련했다.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불교인재개발원 교육관에서 '부처의 생애와 가르침-부처님 입대기를 통해 배우는 불자 수행'을 주제로 진행한다.

부처님 입대기를 '전생기' '탄생기' '성도기' '열반기' 등 8단계로 정리하고, 각 시기마다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배워준다. 강사로는 김승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와 권기현 교수(위덕대 불교문화학부), 황순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등이 참여한다. 4월 21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노숙자와 탈북청소년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으로 희망'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출가절부터 봉축절 기간 동안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적인 수행법을 제시함으로써 불자 스스로 정진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눔 행사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참비 15만원. (02)735-2428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3월 26일부터 8일간 부처님의 입대기를 팔상성도를 통해 배우는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여덟 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솔의대상 비람상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등의 그림에 나타난

일 오후 1~3시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KBS 다큐멘터리 '선 이야기-문명을 새기다'를 방영하고, 종무소 앞마당에서는 사불체험도 진행한다.(02)732-2183

서울 화계사는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8일간 경내 오백성전에서 출·재가 공동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다. 화향일인 4월 2일에는 익산 왕곡리사지에서 철야법회를 봉행한다.(02)903-3361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신도회 및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일일출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일출가 동참자들은 발우공양과 다도, 요가, 좌선, 서원쓰기 등을 체험하게 된다. 4월 1일에는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공부' 첫 시간이 열린다. 사시예불 후 108배 참회, 서원쓰기 등으로 진행한다. 또한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매

로 4월 2일까지 큰법당에서 매일 1250배씩을 올린다. 동참비 2만원.(051)508-0345

광명 금강정사(주지 원명)도 출가·열반절 기간을 '발심정진주간'으로 삼고 매일 사시예불 때 참선 독경 사경 등의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02)898-8200

이 밖에 평창 월정사(주지 정남)는 8일간 1080배씩을 하는 정진법회를,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에 각각 오전 11시 기념 법요식을 개최한다. 월정사 (033)332-6661, 석왕사 (032)663-7771.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1000일 기도'를 이어 나가는 한편, 4월 1일에는 철야정진으로 1만배 기도를 봉행할 계획이다.(02)511-6070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수월선사 추모 사찰 몽골불교대학 건립 등

봉은사 중장기 발전계획안 발표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연변 수월선사 추모사찰과 몽골 불교대학 건립 등 해외포교에 박차를 가한다.

봉은사는 3월 14일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봉은사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발표하고, 해외포교에 눈을 돌려 연변 수월선사 추모사찰과 몽골 신도들을 위한 불교대학을 건립해 해외 포교의 거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명진 스님은 "봉은사 중장기 발전계획안은 봉은사 사찰의 성장과 마음을 바꾸어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을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중회 의장 자승 스님과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 순학규 전 경기도지사, 김건호 봉은사 신도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천일기도를 시작해 매일 새벽 4시, 오전 10시, 오후 6시 세 차례에 걸쳐 하루 천배를 올리는 기도정진을 해오고 있다.

여수령 기자

화엄사, 핀란드에 한국불교 소개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핀란드에 한국불교를 소개한다.

구례 화엄사 포교국장 대요 스님은 핀란드 헬싱키 국립문화박물관에서 4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9개월간 열리는 '한국인의 삶-생활과 문화' 전시회에 참가해 한국불교를 알릴 예정이다.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이번 전시회는 모과나무 기둥으로 지어진 화엄사 구층암 승방, 대웅전의 모습 등 구례 화엄사의 다양한 모습들이 전시된다. 또 대요 스님의 설명으로 '한국불교와 선이야기' '한국인의 차문화' '발우공양'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김원우 기자

유기심인당 글쓰기·중국어 강좌

수원 북수동 유기심인당(주교 혜정)은 3월 25일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화흥어린이도서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 6학년부를 대상으로 글쓰기와 중국어강좌를 개설한다.

1개월 글쓰기 과정은 삶을 가꾸는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꾸며주는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맑은길 아바타 센터
이빛타 마스터 김희균
전환주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셔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환문의 상담 환영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비구니회 법화산림법회 33법사 선정

회향식은 10월 21일 광우 스님 법문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 30분부터 법륜사 대법당에서 여는 법화산림법회에 나올 비구니 33법사를 선정했다.

비구니 33법사는 3월 11일 명성 스님에 이어 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임법(3월18일),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임초(3월25일),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일진(4월1일),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광욱(4월8일), 봉녕사 승가

대학 학감 도혜(4월15일), 유마사 주지 일장(4월22일), 정안승가대학 학장 지형(4월29일)이다.

또 흥안사 세등(5월6일), 전국비구니회 설외부장 성정(5월13일), 동국대 교수 해주(5월20일), 남화사 대우(5월27일), 관음사 임대(6월3일), 망월사 성범(6월10일), 진관사 주지 계호(6월17일), 전국비구니회 규정부장 승혜(6월24일),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7월1일), 동국대 교수

계환(7월8일), 중앙승가대 교수 능인(7월15일), 동국대 교수 묘주(7월22일), 대복사 혜경(7월29일), 지장암 선원주지 정안(8월5일),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8월12일) 스님이 법문한다.

10월 21일 법화산림법회 회향식에는 전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한편 법화산림법회에서는 대승불교의 최상승법문인 <법화경>의 요체를 비롯해 총 28품이 강설되고 있다. (02)3411-8103

김원우 기자

봉화 청량산, 명승지로 지정



청량사가 자리 잡고 있는 봉화 청량산(사진)이 3월 13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봉화 청량산은 예로부터 자연경관이 수려해

'소금강'이라고 불렸을 만큼 명산인데다 지질학적 측면에서도 학술 가치가 뛰어나 명승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량산에는 원효·의상 스님에 얽힌 설화도 전해오며, 연적봉 금탑봉 향료봉 등 12개 암봉과 금강대 원효대 반야대 등 12대, 의상굴 반야굴 등 8굴 등 불교와 관련된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봉화군과 함께 청량산 복원 정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제 27세 주지 취임 진산법회 개최

1600년 한국불교의 정통법맥을 이어가는 조계산 선암사에서는

불기 2551년(서기 2007년) 3월 30일(음 2월 12일)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제27세 주지 설운당 백윤식 스님의 취임 진산법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진산식은 과거 선암사 운영위원회법이 폐지되고 이번에 다시 부활된 선암사 사법, 사규에 의하여 12년만에 재적승 전산총회를 통해 직접 투표로 선출된 만큼 금번 설운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전 종도가 서로간의 지난 갈등을 해소하고 종단화합을 위하여 선암사가 총림의 본래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3월

선암사 제27세 주지 진산식 추진 위원장